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한 송 이

장 석 진[†]

상명대학교

본 연구는 학령 후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상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요인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선정하여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매개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소재 5개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남자 아동 243명과 여자 아동 252명을 포함하는 총 495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인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속에서 성장한 아동은 공격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낮아짐에 따라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이 높은 내담자를 위한 상담적 개입으로서 아동기에 적절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제안함과 동시에 아동의 내적 특성인 기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담적 접근을 제안하는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부모의 심리적 통제, 기본심리욕구 충족, 공격성

* 본 원고는 한송이(2015)의 석사논문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장석진 /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Tel: 02-2287-5497 / E-mail: schang@smu.ac.kr

서 론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 가운데 하나인 공격성(aggression)은 인간이 삶을 영위해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자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 정도가 과하거나 부적응적인 방향으로 표출되면 폭력, 반사회적 행동, 범죄행동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Rubin, Stewart, & Chen, 1995). 최근 공격성이 심리적 기제로서 그 심각성과 영향력이 사회적인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은 매년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재학 중인 학생 전체 22.6%의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으며, 피해학생의 고통의 정도가 2012년 49.3%에서 2013년에는 56.1%로 상승하여, 피해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고통은 점차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응답자 중 75.1%가 학교 폭력 최초의 피해를 초등학교시기로 응답했으며, 그들 가운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피해를 입은 학생이 2010년 35.9%에서 2013년에는 43.7%로 상승하여, 학교폭력의 피해자의 저 연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3;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이와 같이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전부터 몇몇의 연구자들은 학교 폭력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폭력행동 가해자 아동 청소년들에게 가장 특징적인 심리적 특성으로 분노와 공격성을 공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이시형, 1997; Roland & Idsoo, 2001).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공격성은 그 성향이 최초로 발현되는 영아 후기인 18~36개월부터 아동기 후기까지 유지되면서 이후의 청소년기의 비행과 반사회적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Coie & Dodge, 1998; Tremblay, 2000). 특히, 반사회적 공격행동은 아동기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 시기에서부터 급진적으로 증가되면서 아동 자신의 사회적·정서적 부적응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후 청소년기 품행장애나 청소년 범죄로 확대되어 이후 성인범죄나 정신 병리와 같은 사회적 부적응 형태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곽금주, 김연수, 2008; Hall, Herzberger, & Skowronski, 1998; Hudley & Graham, 1993).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 공격성은 아동의 사회적 기능과 적응의 어려움을 예상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또래거부와 고립의 전조일 뿐만 아니라, 향후의 청소년기 품행장애나 문제행동 및 성인기의 사회 적응을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Coie, Dodge, & Kupersmidt, 1990; Crick, 1996). 따라서 아동기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인 적응과 학교폭력 예방뿐 아니라 아동기의 공격성이 지속되어 사회적 부적응 형태나 사회현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공격성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이를 예방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이 요구되면서 연구자들은 공격성의 의미를 행동과 의도를 모두 고려하여 상정하고자 하였으며, 공격성을 다른 사람들이나 물건에 손상을 끼치려는 의도로 행해지는 직접적인 행동과 사고 및 정서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시켰다(Anderson & Bushman, 2001; Baron & Richardson, 1994). 이를 통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연구 결과 공격성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인 내적 요인과 환경적 특성과 같은 외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적응의 결과로 확인되었다(김정원, 김현주, 2007; 박혜경, 박성연, 2002).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행동(박혜경, 박성연, 2002; 정재영, 2013; Buschgens et al., 2010; Chang et al., 2003)과 부부갈등(김민정, 도현심, 2001),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남궁란, 2009)가 확인되었고, 그 중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의 온정, 애정과 반응성, 거부, 강압, 통제, 허용 등과 같은 차원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Travillion & Snyder, 1993). 최근에는 양육행동의 구체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려는 흐름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을 아동에 대한 지지(support)와 통제(control) 차원으로 구분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Barber, Stolz, & Olsen, 2005). 특히,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가운데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는 아동의 정서적 욕구를 무시하고 독립성의 표현이나 자율성을 차단한 채 아동의 정서 및 행동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려는 강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아동의 내현적, 외현적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Barber, 1996; Barber, Olsen, & Shagle, 1994).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통제 할수록 아동의 우울과 불안 및 부적절감 등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안명희, 2010; 전숙영, 2007; Baber et al., 2012; Bean, Barber, & Crane, 2006; Loukas, Paulos, & Robinson, 2005)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도 영향을 주어,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이정운, 최수미, 2012). 그밖에도 아동의 관계적, 신체적, 반응성 공격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격성(안명희, 2010)과 학교 적응 수준과 학업성적(장경문, 2011) 및 사이버 불링(이아름, 이운

주, 양현일, 2014)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고려해볼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며 아동의 공격성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강력한 요인으로서 아동의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과 문제행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공격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거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영향력만을 집중적으로 살펴 본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오늘날 자녀양육이 부부 공동의 역할이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점차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제안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아동의 공격성에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살펴본 연구를 기반으로(Olweus, 1993),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부와 모의 양육행동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였다.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으로는 정서조절능력(노선애, 2012) 및 자아존중감(심승원, 2000), 자아분화(한동현, 김완일, 2013), 자율성(Loeber & Hay, 1997), 자아탄력성(허미정, 장석진, 2012), 우울(하문선, 김지현, 2012), 내현적 자기에(김정균, 장석진, 2014)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연구들은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된 개인 내적 요인을 파악하려는 추세로서, 본 연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 기제로서 아동의 공격성을 유발하는 부정적 정서(Sheldon et al., 2001)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본심리욕구 충족(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의하면 기본심리욕구는 인간이 충분히 기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심리 내적 욕구로서, 인간의 지속적인 심리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공격성과 같은 부적응 문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Deci & Ryan, 2000). 기본심리욕구는 자신이 행동의 주체이고 조절자라는 느낌인 자율성과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하고자 할 수 있다는 느낌인 유능감, 사회적 환경 속에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인 관계성에 대한 욕구로 구성된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이 세 가지 유기적 심리 욕구를 지지하고 충족시키는 경험이 제공되는 환경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성장 및 발달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발현되어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자기결정성이 가능하게 된다고 가정하며,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거나 손상시키는 환경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한다(Ryan & Deci, 2002). 이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의 좌절은 심리적 부적응과 자기패배 행동을 발현시키는 원인으로서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환경적 요소들에 의해 개인의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거나 부적응 행동이 발현된다고 보았다(Deci & Ryan, 2000; Williams et al., 2000). 하지만 세 가지 하위 요인 가운데 자율성이 동반될 때 유능감과 관계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것으로 자율성의 욕구 만족의 선행을 제안한 연구(권순홍, 김진영, 2014; 이명희, 김아영, 2008)와 견해를 달리하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선영, 2013; 한소영, 신희천, 2009). 이는 연구 대상의 연령 및 발달시기를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본 연구는 아동기의 적응을 위하여 이 시기에 요구되는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규명하여 아동기 발달시기에 적합한 가정 및 사회적 환경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아동의 기본심리욕구는 아동의 공격성 및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의 심리

적 통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최적의 상태로 발달하고 기능하기 위해 관계감과 유능감을 느끼고 자율적이 되려는 기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환경적 맥락, 즉 부모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제안하고 있다(Deci & Ryan, 2000).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라는 외부 환경에 의해 세 가지 욕구 충족이 좌절되면서 심리 사회적 적응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주, 2010; Deci & Ryan, 2000). 이는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심리욕구가 부모의 양육행동이라는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충족되거나 좌절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두 변인 사이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영향력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동의 환경적 요인으로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공격성 및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에 영향을 미치며, 기본심리욕구 또한 아동의 공격성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좌절시키면서 아동의 적응을 방해하는 요소로 예측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아동 개인적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의 단일요인으로 연구되었다. 특히,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공격성과 관련하여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세부적인 측면에서 확인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성인기의 사회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공격성을 예방하고 적응에 필요한 기본심리욕구 충족 요인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공격성과 적응을 예상하고 그 수준을 낮추고 예방하는 내적 요인으로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아동의 가정환경에 대한 개입이 어려운 경우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에 초점을 둔 상담적 접근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으로 그림 1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 공격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 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후반의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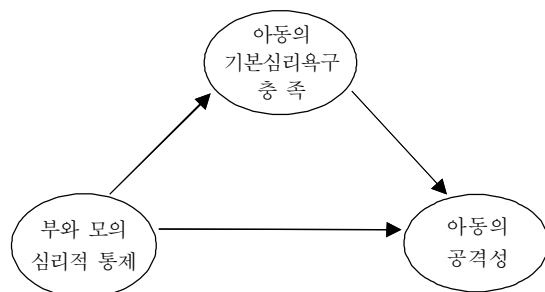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였다. 전체 24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설문지에 대한 설명과 주의 사항을 전달했으며, 담임교사가 수업 시간과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 실시하였다.

설문지에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척도, 아동의 공격성 척도, 아동의 인적사항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회수된 541부의 설문지 중 무성의하게 기재된 설문지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설문지 46부를 제외한 총 495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초등학교 5학년 205명(41.4%), 6학년 290명(58.6%)이며, 남학생은 243명(49.1%), 여학생은 252명(50.9%)이었다.

측정도구

부모의 심리적 통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arber(1996)가 개발한 심리적 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PCS-YSR)를 전숙영(200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자기 표현 제한, 감정 불인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 철회, 불안정한 감정기복의 6개의 하위요인으로 각 6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형식은 Likert 4점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16점 ~ 6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심리 통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Barber(1996)의 5-8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문항의 Cronbach α 계수는 모는 .83, 부는 .80 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부의 심리적 통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3, 모의 심리적 통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4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

아동의 기본심리욕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Koestner와 Veronneau(2001)의 아동 내재적 욕구 만족 척도(Children's Intrinsic Needs Satisfaction: CINSS)를 변안한 이희은(2012)의 한국어판 CINSS 척도를 사용하였다. CINSS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Deci(2001)가 개발한 Intrinsic Need Satisfaction Scale를 토대로 Koestner와 Veronneau(2001)가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본 척도는 개인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은 다시 학교, 가정,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등 각 상황별 욕구 충족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각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형식은 Likert 4점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18-7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기본심리욕구가 잘 충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희은(2012)의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문항의 Cronbach α 계수는 .92, 하위차원에 따라 자율성 .83, 유능감 .84, 관계성 .80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8로 나타났으며, 하위차원에 따라 자율성 .70, 유능감 .82, 관계성 .67로 나타났다.

공격성

아동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동화(1995)가 변안한 Buss와 Perry(1992)의 척도내용을 바탕으로 박윤아(2007)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신체적 공격행동 6문항, 적의성 5문항, 언어적 공격행동 6문항, 분노 4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형식은 Likert 4점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21-8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적인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윤아, 박지연(2008)의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문항의 Cronbach α 계수는 .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아동의 공격성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0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신체적 공격행동 .78, 적의성 .72, 언어적 공격행동 .76, 분노 .71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계 프로그램 SPSS 19.0을 사용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아동의 공격성 관련변인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정상분포가 가정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아동의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본심리 욕구 충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고, Sobel Test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과 공격성 사이에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변인 간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주요 변수의 왜도 및 첨도 값의 크기가 왜도는 3, 첨도는 8 또는 10을 초과하면 극단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Kline, 2005), 본 연구의 왜도의

표 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 및 기술통계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85***	1									
3	-.24***	-.26***	1								
4	-.16***	-.21***	.63***	1							
5	-.33***	-.34***	.60***	.59***	1						
6	-.28***	-.31***	.86***	.88***	.83***	1					
7	.26***	.27***	-.07	-.18***	-.29***	-.21***	1				
8	.36***	.40***	-.27***	-.31***	-.37***	-.36***	.45***	1			
9	.36***	.35***	-.11*	-.20***	-.30***	-.23***	.57***	.59***	1		
10	.39***	.37***	-.19***	-.24***	-.35***	-.30***	.63***	.61***	.64***	1	
11	.41***	.41***	-.18***	-.28***	-.39***	-.33***	.82***	.79***	.85***	.85***	1
M	1.89	1.97	3.09	2.86	3.25	3.07	2.26	2.26	1.98	1.86	2.10
SD	.47	.51	.50	.56	.46	.44	.64	.65	.59	.64	.52
왜도	.66	.56	-.60	-.14	-.84	-.56	.14	.15	.41	.69	.21
침도	.60	.31	.97	-.15	1.26	.98	-.22	-.19	-.12	.19	-.22

주) 1. 부 심리적 통제 2. 모 심리적 통제 3. 자율성 4. 유능감 5. 관계성 6. 기본심리욕구(전체) 7. 신체공격 8. 적의성 9. 언어공격 10. 분노 11. 공격성(전체)

* $p < .05$, *** $p < .001$

절대 값 범위는 최소 .14에서 최대 .84로 나타났으며, 침도의 절대 값 범위는 최소 .12에서 최대 .97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관련성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첫째, 부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공격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r = .41, p < .001$), 기본심리욕구 충족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r = .28, p < .001$)으로 나타났고 둘째, 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공격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r = .41, p < .001$), 기본심리욕구 충족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r = .31, p < .001$)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유형과 공격성의 하위유형과의 관계에서는 부의 심리적 통제와 신체공격 및 언어공격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과 하위변인의 매개효과

부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과 하위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 2. 부의 심리적 통제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과 하위변인의 매개효과

매개변인	단계	예측변인	종속변인	β	t	R^2	F	
부의 기본심리욕구 충족	1단계	부의 심리적통제	→ 기본심리욕구	-.28***	-6.35	.08	40.33***	
	2단계	부의 심리적통제	→ 공격성	.41***	9.95	.17	99.07***	
	3단계	1) 부의 심리적통제	→ 공격성	.35***	8.32	.22	68.22***	
		2) 기본심리욕구	→ 공격성	-.23***	-5.59			
	1. 자율성	1단계	부의 심리적통제	→ 자율성	-.24***	-5.38	.06	28.96***
		2단계	부의 심리적통제	→ 공격성	.41***	9.95	.17	99.07***
3단계		1) 부의 심리적통제	→ 공격성	.39***	9.19	.18	52.38***	
		2) 자율성	→ 공격성	-.10*	-2.22			
2. 유능감		1단계	부의 심리적통제	→ 유능감	-.16***	-3.66	.03	13.37***
		2단계	부의 심리적통제	→ 공격성	.41***	9.95	.17	99.07***
	3단계	1) 부의 심리적통제	→ 공격성	.37***	9.23	.21	66.30***	
		2) 유능감	→ 공격성	-.22***	-5.30			
	3. 관계성	1단계	부의 심리적통제	→ 관계성	-.33***	-7.67	.11	58.89***
		2단계	부의 심리적통제	→ 공격성	.41***	9.95	.17	99.07***
3단계		1) 부의 심리적통제	→ 공격성	.31***	7.57	.24	78.62***	
		2) 관계성	→ 공격성	-.29***	-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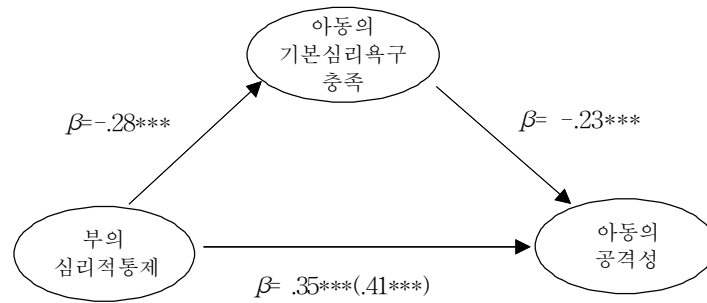
주. * $p < .05$, *** $p < .001$

표 3.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정(부)

경로	z	p
부의 심리적 통제→기본심리욕구→공격성	4.13	.000
$a = -.255, S_a = .040, b = -.274, S_b = .049$		
부의 심리적 통제→자율성→공격성	1.99	.047
$a = -.250, S_a = .047, b = -.096, S_b = .043$		
부의 심리적 통제→유능감→공격성	2.71	.007
$a = -.193, S_a = .053, b = -.198, S_b = .037$		
부의 심리적 통제→관계성→공격성	4.90	.000
$a = -.322, S_a = .042, b = -.322, S_b = .046$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각각 표 2, 표 3과 같다.

우선, 부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 전체의 매개효과를 살



*** $p < .001$

주. ()안의 값은 매개변인이 통제되지 않은 2단계에서의 β 계수임.

그림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부분매개모형

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
 변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매개변인인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28, p < .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종속변인인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
 의하였다($\beta = .41, p < .001$).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
 인인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아동의 공격성
 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으며($\beta = -.23, p < .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
 향이 2단계($\beta = .41, p < .001$) 보다 3단계($\beta = .35,$
 $p < .001$)에서 감소하여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
 족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
 계에서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
 동의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단독으로 17%($F = 99.07, p < .001$),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추가되었을 때는
 22%($F = 68.22, p < .001$)로 증가하여 부모의 심
 리적 통제가 통제된 후에도 아동의 기본심리욕
 구 충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
 족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Sobel Test를 통해 유의도를 검
 증한 결과 부분매개 효과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z = 4.13, p < .001$) (표 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
 계에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 전체 및 하
 위요인의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모형은 그림 2
 와 같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
 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하위요인
 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모의 심
 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아
 동의 자율성 충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
 변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매개변인인 아
 동의 자율성 충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고($\beta = -.24, p < .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종속변인인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beta = .41, p < .001$).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아동의 자
 율성 충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도 유의하였으며($\beta = -.10, p < .001$), 부모
 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beta = .41, p < .001$)보다 3단
 계($\beta = .39, p < .001$)에서 감소하여 아
 동의 자율성 충족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
 를 보였다.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을

$$1) Z_{ab} = \frac{a\beta}{\sqrt{a^2SE^2b + b^2SE^2a}}$$

면, 부의 심리적 통제는 단독으로 17%($F=99.07$, $p<.001$), 아동의 자율성 충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자율성 충족은 부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Sobel Test를 통해 유의도 검증 결과 부분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1.99$, $p<.001$)(표 3). 부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유능감 충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인인 부의 심리적 통제가 매개변인인 아동의 유능감 충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16$, $p<.001$), 부의 심리적 통제가 종속변인인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beta=.41$, $p<.001$).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아동의 유능감 충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으며 ($\beta=-.22$, $p<.001$), 부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beta=.41$, $p<.001$)보다 3단계($\beta=.37$, $p<.001$)에서 감소하여 아동의 유능감 충족은 부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부의 심리적 통제는 단독으로 17%($F=99.07$, $p<.001$), 아동의 유능감 충족이 추가되었을 때는 21%($F=66.30$, $p<.001$)로 증가하여 부의 심리적 통제가 통제된 후에도 아동의 유능감 충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유능감 충족은 부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Sobel Test를 통해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2.71$, $p<.001$)(표 3). 부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관계성 충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인인 부의 심리적 통제

가 매개변인인 아동의 관계성 충족이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33$, $p<.001$), 부의 심리적 통제가 종속변인인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beta=.41$, $p<.001$).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아동의 관계성 충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으며($\beta=-.29$, $p<.001$), 부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beta=.41$, $p<.001$)보다 3단계($\beta=.31$, $p<.001$)에서 감소하여 아동의 관계성 충족은 부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부의 심리적 통제는 단독으로 17%($F=99.07$, $p<.001$), 아동의 관계성 충족이 추가되었을 때는 24%($F=78.62$, $p<.001$)로 증가하여 부의 심리적 통제가 통제된 후에도 아동의 관계성 충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관계성 충족은 부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Sobel Test를 통해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4.90$, $p<.001$)(표 3).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과 하위변인의 매개효과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과 하위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각각 표 4, 표 5와 같다.

우선,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 전체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

표 4. 모의 심리적 통제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과 하위변인의 매개효과

매개변인	단계	예측변인	종속변인	β	t	R^2	F
모의 기본심리욕구 충족	1단계	모의 심리적통제	→ 기본심리욕구	-.31***	-7.29	.10	53.10***
	2단계	모의 심리적통제	→ 공격성	.41***	10.07	.17	101.41***
	3단계	1) 모의 심리적통제	→ 공격성	.35***	8.19	.21	67.03***
		2) 기본심리욕구	→ 공격성	-.22***	-5.22		
1.자율성	1단계	모의 심리적통제	→ 자율성	-.26***	-6.04	.07	36.44***
	2단계	모의 심리적통제	→ 공격성	.41***	10.07	.17	101.41***
	3단계	1) 모의 심리적통제	→ 공격성	.40***	9.24	.18	52.84***
		2) 자율성	→ 공격성	-.08	-1.93		
2.유능감	1단계	모의 심리적통제	→ 유능감	-.21***	-4.87	.05	23.71***
	2단계	모의 심리적통제	→ 공격성	.41***	10.07	.17	101.41***
	3단계	1) 모의 심리적통제	→ 공격성	.37***	9.03	.21	64.35***
		2) 유능감	→ 공격성	-.20***	-4.78		
3.관계성	1단계	모의 심리적통제	→ 관계성	-.34***	-8.01	.12	64.17***
	2단계	모의 심리적통제	→ 공격성	.41***	10.07	.17	101.41***
	3단계	1) 모의 심리적통제	→ 공격성	.32***	7.58	.24	78.71***
		2) 관계성	→ 공격성	-.29***	-6.83		

주. *** $p < .001$

표 5.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정(모)

경로	z	p
모의 심리적 통제→기본심리욕구→공격성	3.90	.000
$a = -.270, S_a = .037, b = -.260, S_b = .050$		
모의 심리적 통제→자율성→공격성	9.24	.047
$a = -.261, S_a = .043, b = -.084, S_b = .044$		
모의 심리적 통제→유능감→공격성	3.33	.001
$a = -.238, S_a = .049, b = -.181, S_b = .038$		
모의 심리적 통제→관계성→공격성	5.05	.000
$a = -.312, S_a = .039, b = -.317, S_b = .046$		

변인인 모의 심리적 통제가 매개변인인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31, p < .001$), 모의 심리적 통제가 종속변인인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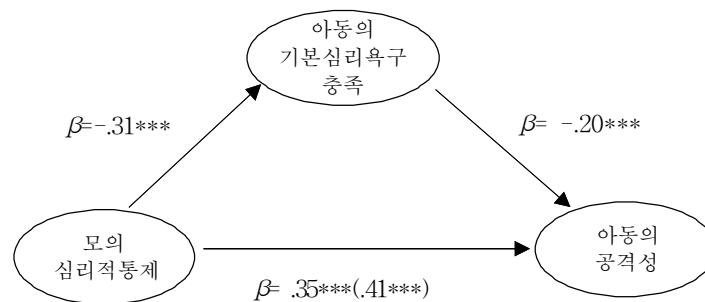
하였다($\beta=.41, p<.001$).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으며($\beta=-.22, p<.001$), 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beta=.41, p<.001$) 보다 3단계($\beta=.35, p<.001$)에서 감소하여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모의 심리적 통제는 단독으로 17%($F=101.41, p<.001$),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추가되었을 때는 21%($F=67.03, p<.001$)로 증가하여 모의 심리적 통제가 통제된 후에도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Sobel Test를 통해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3.90, p<.001$)(표 5).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 전체 및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또한,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

계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율성 충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인인 모의 심리적 통제가 매개변인인 아동의 자율성 충족이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26, p<.001$), 모의 심리적 통제가 종속변인인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beta=.41, p<.001$). 그러나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아동의 자율성 충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beta=-.08, p<.001$), 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 ($\beta=.41, p<.001$)보다 3단계($\beta=.40, p<.001$)에서 감소하여 모의 심리적 통제만이 아동의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자율성) 충족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유능감 충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인인 모의 심리적 통제가 매개변인인 아동의 유능감 충족에



*** $p<.001$

주. ()안의 값은 매개변인이 통제되지 않은 2단계에서의 β 계수임.

그림 3. 모의 심리적 통제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부분매개모형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21$, $p < .001$), 모의 심리적 통제가 종속변인인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beta = .41$, $p < .001$).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아동의 유능감 충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으며($\beta = -.20$, $p < .001$), 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beta = .41$, $p < .001$)보다 3단계($\beta = .37$, $p < .001$)에서 감소하여 아동의 유능감 충족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모의 심리적 통제는 단독으로 17%($F = 101.41$, $p < .001$), 아동의 유능감 충족이 추가되었을 때는 21%($F = 64.35$, $p < .001$)로 증가하여 모의 심리적 통제가 통제된 후에도 아동의 유능감 충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유능감 충족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밝혀졌으며, Sobel Test를 통해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3.33$, $p < .001$)(표 5).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관계성 충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인인 모의 심리적 통제가 매개변인인 아동의 관계성 충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34$, $p < .001$), 모의 심리적 통제가 종속변인인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beta = .41$, $p < .001$).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아동의 관계성 충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으며($\beta = -.29$, $p < .001$), 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beta = .41$, $p < .001$)보다 3단계($\beta = .32$, $p < .001$)에서 감소하여 아동의 관계성 충족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모의 심리적 통제는 단독으로 17%($F = 101.41$, $p < .001$), 아동의 관계성 충족이 추가되었을 때는 24%($F = 78.71$, $p < .001$)로 증가하여 모의 심리적 통제가 통제된 후에도 아동의 관계성 충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관계성 충족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밝혀졌으며, Sobel Test를 통해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5.05$, $p < .001$)(표 5).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변인들의 관련성을 탐색하면서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실천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동의 내적 변인을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으로, 외적 변인을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설정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직·간접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 및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은 기본심리욕구 충족과 모두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라는 사회적 환경이 자녀의 세 가지 욕구 충족을 방해한다는 Deci & Ryan(2000)의 연구결과와 부모와 자녀

의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의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김현주(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자신의 심리적 영역에 대한 부모의 통제 수준을 높게 느낄수록 기본심리욕구의 좌절과 공격적인 행동을 자주 경험하게 되므로, 아동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고 공격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종합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적개심, 분노, 언어공격, 신체공격성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기본심리욕구의 관계성, 유능감, 자율성 충족과 같은 긍정적 요소들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세 가지 기본적인 심리욕구가 충족될 때 인간의 심리 성장이 최적으로 발휘되어 기능할 수 있으며, 환경의 통제로 인한 기본심리욕구의 좌절이 심리적 부적응과 자기패배 행동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설명하는 Deci와 Ryan(2000)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곧 외부 환경의 통제가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과 아동의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이 삶의 만족과 심리적 욕구 충족을 방해하며, 이에 아동의 심리적 욕구 충족을 위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특히, 부모 각각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에 의하여 부분 매개 하여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격성을 환경의 통제로 인한 기본심리욕구의 좌절이 심리적 부적응과 자기패배 행동을 발생시키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Ryan & Deci(2000)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더불어 개인 외적 요소들에 의해 개인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방해받으며 느끼는 심리적 부적응을 통해 부적응 행동이 발현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Williams et al., (2000)의 연구결과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하여 아동의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되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긴장하게 되며 이에 대한 대처 반응으로 분노, 적대감, 공격성 등이 발현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Averill(198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 환경의 통제에 의한 기본심리욕구의 좌절이 심리적 부적응과 자기패배 행동으로서 아동의 공격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던 유신복, 손원숙(2014)과 외적 영향력으로 인하여 내적 동기나 목표달성을 침해당한 아동은 욕구좌절을 더 쉽게 경험하면서 공격행동을 더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확인한 허문선 외(2013)의 연구결과를 맥락을 함께 하는 결과이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회 환경요인으로서 아동의 심리사회적 성숙 및 기본심리 충족에 기여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며, 이는 부모가 아동에게 강압적이고 지시적인 태도로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좌절시키기 보다는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반영한 부모상담과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장인 가정환경에 대한 개입이 어려운 경우 보다 접근이 용이한 아동의 개인 내적 요인에 초점을 둔 상담 개입의 필요성을 지지할 수 있는 결과이다.

셋째,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충족의 매개효과 정도를 비교한 결과, 관계성 충족의 매개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능감 충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자율성 충족의 매개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자율성 충족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에 유의한 매개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자율성 충족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그 영향력이 유능감과 관계성 충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자율성 충족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유능감을 발휘하는 것으로 자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Deci & Ryan(2000)의 의견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이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와 심리적 만족감과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 가운데 유능감과 관계성이 가장 설명력 있다는 한소영, 신희천(2009)과 관계성 및 유능감 충족이 아동기의 사회적 적응에 더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이선영(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자율성을 중시하는 서양문화와는 달리 부모와의 유대감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자율성 보다는 관계성이 정신 건강에 더 밀접한 요인이라는 주장하는 장성숙(2003)의 연구와 한국인의 경우 관계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이며, 유능감 욕구 충족을 정적 정서와 가장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한 Sheldon et al., (2001)의 문화 연구에 의해 관계성을 추구하는 동양문화권의 정서적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아동들에게는 부모와 자녀 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통하여 유능감을 지지하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공격성과 같은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 학령기 아동들은 이전 시기보다 더 독립적이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부모님의 사랑,

조언의 강화 및 일상 문제에 대한 도움을 원하는 등 부모의 영향력이 큰 시기로서(Laura, 2007), 상대적으로 자율성의 영향력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더불어**, Erickson이 제안한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아동기는 본능적 성숙과 사회적 압력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인지적 ·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여 점차 근면성을 형성하고 발달시키는 시기로, 이러한 심리사회적 발달 과업을 완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아에 대한 유능감의 획득을 언급하고 있다(정옥분, 2007). 이러한 이론적 근거는 아동의 관계성과 유능감을 충족시키는 것이 자녀의 사회적 적응을 돕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선영(2013)과 아동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시기의 유능감 충족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학령기 아동에게 스스로의 자율적인 선택과 책임만을 권고하기 보다는 의미 있는 사회 환경인 부모와 주변인의 도움과 지지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로서 관계성과 유능감을 충족시키는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부모 및 사회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가정과 교육현장의 노력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러한 개입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아동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박탈당하고, 이로 인한 아동의 공격성 및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정과 사회의 노력은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기여하는데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서울시에 소재한 초

등학교 5, 6학년의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국의 초등학생이나 다른 연령의 아동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지역과 연령대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학령기 아동으로서 선정하여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충족에 대한 매개 효과가 다른 요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지지와 도움이 요구되는 아동기의 발달적 특성으로 설명되는 결과로 자율성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차이를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모든 잠재변인들은 아동의 보고에 의해 측정되었으므로, 자기 평가 이외의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 이외의 다양한 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총체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및 공격성의 간접적인 영향력을 확인했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하여 아동의 공격성을 설명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아동의 적응을 위한 공격성 조기예방을 위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아동의 심리적 욕구 충족의 중요성을 제안하는 한편, 이를 반영한 부모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아동의 적응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위한 연구와 사회지지 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곽금주, 김연수 (2008). 발달적 관점에서 본 정신병질.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1), 71-89.
- 권순홍, 김진영 (2014).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 및 일상적 스트레스와 안녕감간의 관계. 한국심리치료학회지, 6(1), 1-15.
- 김동기, 홍세희 (2007). 다층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 검증. 아동학회지, 28(2), 217-233.
- 김민정, 도현심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 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 관계와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민효 (2009). 공격성 감소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유아의 공격성과 부모의 양육방식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선애, 김준호 (1995). 부모의 통제 유형과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6(5), 49-63.
- 김정균, 장석진 (2014).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5(2), 791-810.
- 김정원, 김현주 (2007).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된 변인들의 관계성 연구. 아동학회지, 16(2), 85-93.
- 김지현 (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외적 요인에 대한구조 방정식 모형 검증.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현주 (2010).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 개발을 통한 청소년 안녕감 설명 변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김희화 (2005). 초기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과 심리적 복지감 및 비행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감독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2(4), 151-168.

- 김희영 (2010). 어머니의 통제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 남궁란 (2009).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노선애 (2012).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류현정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통제가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 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박성연 (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간의 관계 및 세대 간 전이. 아동학회지, 23(5), 35-50.
- 박윤아, 박지연 (2008).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정서 및 행동장애 위험 아동의 공격성 및 정서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4(1), 23-42.
- 박혜경, 박성연 (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8), 87-98.
- 서미정 (2013). 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기본심리욕구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심승원 (2000).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안명희 (2010).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와 심리적 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67-885.
- 유신복, 손원숙 (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기본심리욕구, 정서조절 및 공격성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지, 28(1), 205-224.
- 윤종선 (2011).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남아와 여아의 성차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천의과대학교.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선영 (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시형 (1997). 학교폭력 실태와 그 예방. 대한의사협회지, 40(10), 1268-1273.
- 이아름, 이운주, 양현일 (2014). 고학년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언어폭력성이 사이버 불링 피해 및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5(6), 2437-2450.
- 이정윤, 최수미 (2011).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2), 635-650.
- 이희란 (2013). 부모의 자율성 지지 및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이희은 (2012).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박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 장경문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아분화수준이 학교생활적응과 학교성적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5(1), 89-108.
- 전숙영 (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 학령기 후기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5(6), 101-111.
- 정옥분 (2007). 전생애 인간발달의 이론. 서울: 학지사.

- 정재영 (201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기개념과 또래지각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정진경, 오경자, 문경주, 조아라 (2005).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과 비행(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755-770.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2010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3). 2012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2013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하문선, 김지현 (2013). 관계성과 우울을 매개로 한 청소년의 성역할 갈등과 공격성의 관계. *아시아 교육연구*, 14(2), 235-259.
- 한동헌, 김원일 (2013). 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1), 247-263.
- 한소영, 신희천 (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만족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439-464.
- 허미정, 장석진 (2012). 가족기능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3), 1211-1231.
- Anderson, C. A., & Bushman, B. J. (2001). Effects of violent video games on aggressive behavior, aggressive cognition, aggressive affect, physiological arousal, and prosocial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scientific literature. *Psychological Science*, 12(5), 353-359.
- Averill, J. R.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38(11), 1145-1160.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rber, B. K., Olsen, J. E., & Shgle, S. 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120-1136.
- Barber, B. K., Stolz, H. E., & Olsen, J. A.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0(4), 96-104.
- Barber, B. K., Xia, M., Olsen, J. A., McNeely, C. A., & Bose, K. (2012). Feeling disrespected by parents: Refining the measurement and understanding of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Adolescence*, 35(2), 273-287.
- Baron, R. A., & Richardson, D. R. (1994). *Human aggression*(2nd ed.). New York: Plenum Pres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an, R. A., Barber, B. K., & Crane, D. R. (2006).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among African American youth: The relationships to academic grades, delinquency and depression. *Journal of Family Issues*, 27, 1135-1356.
- Buschgens, C. J., van Aken, M. A., Swinkels, S. H., Ormel, J., Verhulst, F. C., & Buitelaar, J. K. (2010). Externalizing behavior in preadolescents: Familial risk to externalizing behaviors and

- perceived parenting styles.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9(7), 567-575.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Chang, L., Schwartz, D., Dodge, K. A., & McBride-Chang, C. (2003). Harsh parenting in relation to child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4), 598-606.
- Coie, J. D., & Dodge, K. A. (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W. Damon & N. Eisenberg(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779-862). Toronto: Wiley.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17-5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 Deci, E. L., Ryan, R. M., Gagne, M., Leone, D. R., Usunov, J., & Kornysheva, B. P. (2001). Need satisfaction, motivation, and well-being in the work organizations of a former eastern bloc country: Across-cultural study of self-determi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8), 930-942.
- Hall, J. A., Herzberger, S. D., & Skowronski, K. J. (1998). outcome expectancies and outcome values as predictors of children's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24, 439-454.
- Hudley, C., & Graham, S. (1993). An attributional intervention to reduce peer directed aggression among African-American boys. *Child Development*, 64, 124-138.
- Laura, E. Berk (2009). *생애발달 I: 영유아기에서 아동기까지*[*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이옥경, 박영신, 이현진, 김혜리, 정운경, 김민희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전은 2007에 출판).
- Loeber, R., & Hay, D. (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1), 371-410.
- Loukas, A., Paulos, S. K., Sheri Robinson, S. (2005). Early adilescent social and overt aggression: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 335-345.
- Moilanen, K. L. (2007). The adolescent self-regulatory inventory: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questionnaire of short-term and long-term self-regul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6), 835-848.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s.
- Roland, E., & Idosoo, T. (2001). Aggression and bullying. *Aggression behavior*, 27(3), 446-462.
- Rubin, K. H., Stewart, S. L., & Chen, X. (1995). Parents of aggressive and withdrawn children. In M. Born 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pp.255-284).

- Sheldon, K. M., Elliot, A. J., Kim, Y., & Kasser, T. (2001). What's satisfying about satisfying events? Testing 10 candidate psychological nee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2), 325- 339.
- Travillion, K., & Snyder, J. (1993). The role of maternal discipline and involvement in peer rejection and neglec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4*, 37-57.
-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 Williams, G. C., Hedberg, V. A., Cox, E. M., & Deci, E. L. (2000). Extrinsic life goals and health-risk behaviors in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8), 1756-1771.

원고 접수일 : 2015. 06. 15.
수정원고 접수일 : 2015. 08. 05.
게재 결정일 : 2015. 08. 11.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ren's Aggression

Han, Song-Yi

Chang, Seok-Jin

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relevance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ffecting the aggressiveness which is the important factor that predicts psycho-social adaptation for children of school age and mediated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of parents and children's aggression.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of parents and aggression of children, it carried out questionnaire to 243 boys and 252 girls in grade the fifth and sixth of five elementary schools in Seoul. This study revealed that psychological control of parents directly affects aggression of children and indirectly affects aggression of children through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s mediator variable.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 that children who grow under psychological control of parents are highly aggressive and the lower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of children is, the higher their aggression is. It also suggest appropriate parents' nurture attitude for children who are very aggressive as one of consultation intervention and the basic data of consultation approach satisfying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children when it is difficult for parents to intervene their nurture attitude.

Key words : *Psychological Control,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ggression*